

도전의 결실...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 향한 첫 관문 통과 '패거'

**예상 깨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단독 선정
대한체육회, 전북 대한민국 대표 후보도시로 선정
국제경쟁 대비 전담 조직 구성 연대 도시 협력 추진
연대도시 협력 통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 견인 계기**

전북자치도가 대한체육회로부터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후보도시로 단독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 유치에 나선다. 전북은 대한체육회를 대표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의 결과는 우리 도민의 도전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당당한 성취이며, 빛나는 성공이다"며 변함없는 지지와 뜨거운 응원을 보낸 도민에게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대한 공을 돌렸다.

전북은 그동안 인프라 부족과 강력한 경쟁 도시와의 격차 등 우려를 극복하고 도민의 단합된 힘과 도전 정신으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 유치가 아니라,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번 선정은 전북이 스포츠와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전북은 앞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우선, 전담 조직을 신속히 구성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행정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남·광주, 충청권, 대구 등 연대 도시들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전북의 강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도민과 체육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전북은 각계각층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 및 유

치 활동을 전개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며, 지역의 전통과 현대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접목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전북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광산업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연대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일차 관문 통과와 도민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제무대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도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이 최종 선정(총 61표 중 49표획득 서울11표)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체육회, 재경향우회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크루즈산업 시대 본격 개막 위한 힘찬 출항

**제1대 전북자치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 위촉식
새만금과 부안 중심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유치방안 논의**

전북자치도가 크루즈산업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대 전북자치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만금과 부안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크루즈선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김미경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이재 도의원, 관련 부서장, 크루즈산업 전문가 등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크루즈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목표로 크루즈선 유치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을 담은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

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출입국·검역 관련기관 등 8개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해 크루즈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중국 청도에서 열린 '국제 크루즈포럼'에 참석해 '청도-인천-전북(부안)'을 연결하는 다모항 크루즈항로 개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

이 선언문에는 전북자치도, 중국 청도시, 인천광역시, 부안군 등 4개 지역과 2개 항만운행사, 5개 중국 크루즈 선사, 2개 크루즈 연구기관 등이 참여, 크루즈 운영·관리 및 관광 상품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안전한 크루즈 기항지 유치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5월까지 크루즈 기항 안정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에서는 항로 여건 조사, 묘박지 검토, 텐더보트 안정성 평가, 터미널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크루즈 항만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새만금 개발청 및 부안군과 함께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 활동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크루즈산업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북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도민의 도전정신과 연대로 이룬 성과...김관영 도지사 입장문

**전북 2036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국제 경쟁 대비 총력
연대 도시 협력·전담 조직 구성·정부 승인 절차 신속 추진**

도전정성!

전북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공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후보도시로 단독 선정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번이라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우리 도민의 도전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당당한 성취이며, 빛나는 성공입니다. 오늘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늦은 출발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 강력한 경쟁 상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인프라 부족과 재정 논란 등 난관이 더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신 것은 도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전북이 과연 될까'라는 의심 앞에서 도민 여

러분께서는 '된다!', '우리도 해보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북도 할 수 있다'라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 무대의 벽은 더욱 높습니다. 인도와 이집트 등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가 10여 곳에 육박합니다. 치열한 경쟁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책임질 전담 조직을 곧바로 꾸리겠습니다. 도의회와 협력해 유치 추진에 필요한 추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전·남·광주, 충남·충북, 대구 등 연대 도시와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심의와 국내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의향서 제출과 함께 개최도시 사전 선정 기구인 '미래유치위원회'를 방문해서 전북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도전했고, 함께 이뤄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의 길에 나섭니다. '할 수 있다'는 초심으로 초지일관 전진하겠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동과 서, 남과 북, 지방의 도시들이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도전하면,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전북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주시십시오. 전북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함께 씁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갑니다

**전북 전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전북농협이 함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36 JEONJU

전북농협

전북특별자치도, 등록규제 208건 도민 공표

도민 의견 적극 반영, 불필요한 규제 축소·실질적 규제 혁신 추진

전북자치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2025년 등록규제' 208건을 지난달 28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전북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규제'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규제 목록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전북자치도 명칭 변경, 지난해 조례 제·개정 반영, 상위법 위입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반영된 총 208건으로 지난해(220건) 대비 12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등록규제에는 '전북특별자

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련시설 이용신청과 이용료 반환을 규정한 2건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완화 적용 조항 등 총 3건이 신규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규정한 조례를 비규제로 정정하는 등 총 15건의 규제를 제외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도민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절차를 간소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

점을 뒀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2025년 등록규제 도민공표는 전북자치도의 규제혁신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규제 목록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록규제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들은 이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임승식 도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등 조례안' 통과… 농어업인 경영 부담 해소 기대



임승식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 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개 시군 11만7천391농가에 704억(도비282, 시군비 422)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단위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

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개인별 연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편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현재 농가 12만2천500호에서 농업인 18만8천750명으로 대상 건수가 6만6천250건이 증가되고, 총 796억(도비 319, 시군비477)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농민 공익수당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전북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 축하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주 후보지 선정 내 일처럼 기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가 선정된 것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축하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올림픽 개

최 경험, 제반 인프라와 접근성 등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쟁도시를 제치고 압도적인 지지로 전주가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전북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로, 지방도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낸 역사적 쾌거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도 천 년 역사를 함께 해 온 오랜 이웃이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로서 내 일처럼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며 "2036년 전주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지방이 고루 발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 전북이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전북도, 28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실시

전북자치도가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4주간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현재 도내에는 총 25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 관리, 질병 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 확인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보호, 치료 등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정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청구, 동물학대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는 물론 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전북도 내에서는 총 8천79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중 2천791마리(31.7%)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또는 기증됐다.

한편, 도는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2억원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동물보호사업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위한 시군 협력 추진

전북자치도가 도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목표로 시군과 힘을 합친다.

도가 지난달 28일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안부가 지자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를 5개(특·광역시/도/시/군/구) 그룹으로 나눠 상대 평가하고 매년 공표하는 지수이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2024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군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44개 전체 세부지표별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해 등급 결정에 영향이 크고 개선 가능한 세부

지표를 선정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앞으로 도는 올해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컨설팅세부지표 통계 관리 등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지수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역안전지수 향상 실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위해요소(사망지수) 감소 사업, 시설개선사업 등 공모사업 대응, 국립 재난안전연구원 방문 자문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택 도 안전정책과장은 "지역안전지수 향상 노력을 통해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자치도, 지역축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전주 글로스터호텔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축제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군 축제 지원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자치도가 선정한 2025년 육성축제 36개(대표축제 14개, 작

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8개)의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 방안 등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2025년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 ▲축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축제 담당

자 인권침해 방지 교육 ▲축제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관계자 간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은 한평나비축제, 대전0시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총괄 기획·연출한 장진만 사)관광문화기술연구소 소장이 '축제의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 개

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글로벌 축제의 성공 요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축제 트렌드 변화를 설명하며 축제 성공의 핵심 요인인 대표 콘텐츠 개발 전략을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김창수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축제 환경과 트렌드를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과 사고의 전환, 그리고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퍼플오션 전략, 기존 지역축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요소를 추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축제 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완주군, 지역먹거리 상생협력 강화

지속가능 지역경제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추진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먹거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완주군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먹거리 상생협력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 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판로 확대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양 시군은 지난 2022년 12

월 공공급식 분야에 지역 내 부족한 먹거리(농산물, 가공품, 축산품) 품목과 물량을 상호 우선 공급기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먹거리의 공공 급식 공급망 안정화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증가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1월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완주군에서 생산된 가공품인 두부와 간장, 된장 등 10개 품목이 전주시역 250여 개 학교급식에 공급돼 총 7억5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전주산 농산물 24개 품목은

완주군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면서 3000만 원의 농가소득이 창출됐다.

또한 완주산이 전주푸드 직매장에 3억 1700만 원, 전주산이 완주푸드 직매장으로 1억1700만 원이 공급되는 등 양 시군 직매장을 통해 상호공급된 거래액은 4억 3400만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전북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8만2000여 명의 학생과 63만7000여 명의 인구(전북의 37%)의 소비시장을 가진 전주시는 부족한 식재료를 완주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완주군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주에 공급할 수 있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

했다.

시는 앞으로도 완주군과 상생협력 협의체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공 급식의 수요 충족과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망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먹거리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 공급하고 시민에게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구직 청년 대상 면접정장 무료 대여로 취업 도와

1일부터 ‘2025년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추진-전문업체에서 이용 가능

전주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도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18세~39세 이하의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정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2025년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 입찰을 거쳐 선정된 정장대여 전문업체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용자별 체형에 적합한 정장을 수선해 대여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개 입찰을 거쳐 청년

들의 접근성과 정장 보유수,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매장인 ‘센티도’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시는 이용자의 요구사항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이용자의 나이를 18세~39세까지 확대했으며, 총 1115회분의 면접 정장을 대여해줄 계획이다.

면접정장 무료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1인당 연3회 예산 소진 시까지 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구직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의 면접관이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던지고, 응답 내용과 표정, 목소리, 시선 처리, 움직임 등을 파악해

장단점을 분석해주는 시스템인 ‘AI 모의 면접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로·취업 교육과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 모의면접 시스템 및 프로그램 참여는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로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진선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미취업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취업 준비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청년의 실질적 수요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들과 함께 세계도시로 나아갈 것”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주시와 도는 비수도권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스포츠 인프라 확충,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올림픽 추진 등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국제 경쟁에 나선다.

다음은 우범기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 담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시 전주시민 여러분과 체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뛰어준 비수도권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시는 전북특별

자치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올림픽 개최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당당히 국제 경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올림픽을 준비하는 등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를 넘어 세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한체육회 및 정부와 협력하며 2036 전주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전북소방본부, 생성형 AI 교육 도입…업무 혁신 추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소방감 이요숙)는 오늘부터 소방업무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방본부도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개선과 업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챗지피티와 코파일럿을 활용한 자료 검색,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등 다방면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기반 사전 생성, 동영상 자동 편집, AI 활용 PPT 제작, 회의록 요약 등 57개 과제로 구성돼

행정 혁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내 3천456명의 소방공무원 누구나 온라인 교육 전문 업체(성안당)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를 활용한 학습능력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통해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자에 감사 전해

납부한 세금, 시 발전 위한 재원으로…성실세납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추진 계획

전주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와 세정 협조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에 시는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원활한 시정 운영에 도움을 준 시민과 기업들에 감사를 표했다.

시는 이 소중한 세금으로 ▲전주 일자리 창출 ▲탄소융복합 등 미래산업 육성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복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에 부응해 마을세무사를 통한 지방세·국세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성실납세자 200명에게 전주시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신속 소형주택 취득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 ▲임차한 소형주택 취득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등이다.

아울러 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모바일 전자승달 및 자동이체 활용을 독려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성실·모범납세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직무연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납부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14일까지 연장

전북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하고 위기 대응 단계도 ‘심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을 지속하고 가점소독시설(30개소) 운영을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이 그대로 연장되며, 오는 14일까지 강화된 정밀검사가 지속 추진된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소독 주간이 운영되며 철새 서식지

인 하천과 축산자랑 이동이 많은 위험 구간을 집중 소독해 추가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달 이후에도 철새 이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키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도, 전문가들과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스마트 양식 분야별 전문가 18명 위촉...7개 기술분야 109개 과제 발굴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및 실증 연구시설 구축, 창업지원센터 건립 계획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전북연구원에서 첨단 스마트양식 산업화 촉진 및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계, 기업체, 생산자 등 1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양식 발전 제고를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스마트 양식 연구개발 과제 발굴 논의가 진행됐다.

구성된 포럼은 앞으로 수산양식업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체질을 데이터 기반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양식 7개 기술분야 109개 과제에 대한 사업 발굴과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 기술 자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첨단 스마트양식 산업화 촉진 및 육성을 위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완주에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임실에는 스마트 양식 실증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순환여과 시설을 활용한 한다리새우의 사육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준양식장 모델

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의 고령화와 공동화 등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김제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ICT 기반 교육 및 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수면 양식의 활성화를 돕는 중요한 거점이 될 예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 구축을 위해 시작된 오늘 포럼이 마중물이 돼 전북이 스마트 양식을 대표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상의,도 올림픽 후보지 선정 환영 성명서

“지역 상공인 모두 최종개최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 기울일 것”



지난달 28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이 전북특별자치도로 확정되면서 도내 상공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명서를 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대, 전북상의)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는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 말할 때, 전북특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 개선,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절호의 기회다”고 했다.

또한 “전북의 꿈이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그동안 전북이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 후보지 선정을 놓고 노력한 인사들에 간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 상공인 모두는 또 한번의 ‘역사적인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각

을 밝혔다.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유치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최준호 기자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 관계기관 협약 체결

광주시방과용노동청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농사업장 안전 협력체계 구축·인식 개선 기관 합동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한)은 지난달 28일 오후, 본청에서 광주지방과용노동청 등 6개 기관과 호남지역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2024. 1. 27.) 됨에 따라 5인 이상 농사업장(농가)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안전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이후, 호남지역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업안전보건포럼*’이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농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지원 및 기술·재정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안전보건정보 및 산재보험·재정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고 농업 분야 중대재해 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안전보건포럼’을 운영하고, 협약기관과 표준 교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방과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및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전문 상담(컨설팅),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 자료 지원, ‘농업안전보건포럼’ 운영지원, 소규모(5인 이상) 농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독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농업기술

원은 농사업장의 안전 활동 촉진 및 안전보건 실천 사례 발굴, 소규모 농사업장 대상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 정보 안내 등을 맡는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사업장 대표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 요인을 진단, 개선할 수 있는 예방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 중대재해 예방 협력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만경·동진강 ‘벧길 르네상스’ 조성으로 문화경제 활성화 모색

인근 지자체와 새만금 벧길 조성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 개최...주변 지역 문화·역사·관광 자원 연계 방안 전문가 제언 이어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달 28일 새만금 인근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벧길 조성’을 통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등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인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벧길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정재희 교수가 ‘아라벧길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례’를,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오정례 교수가 ‘새만금 벧길 조성 기본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희 교수는 발제에서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벧길은 수상 교통수단, 물류 기능을 넘어 아라마린 페스티벌, 마라톤대회, 카약 축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8일 새만금 인근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벧길 조성’을 통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벧길과 연계한 아라자전거길은 인공폭포, 워터프런트 광장 등 친환경 친수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라벧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

근성, 풍부한 생태 자원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강조했다.

오정례 교수는 “새만금 벧길 조성은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공항, 신항만과 연계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제2 아라

벧길 사업을 새만금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군산의 고군산군도, 노을이 아름다운 일몰 맛집 김제 만경낙조대, 추억이 깃든 춘포역(폐역) 마을 등 지역별로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벧길을 따라 즐길 거리가 있는 오토캠핑장, 아와 클라이밍 등 테마형 레저공간 조성과 부안 간척사 등 지역 문화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행사) 등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 필요성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건설 중인 수변도시수로 공간과 연계해 새만금 인근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요트 등 수상교통 도입 필요성도 제시하며, 새만금에서 익산까지 벧길로 연결해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어선 안전 강화 총력...4월까지 합동점검 실시

합동점검단 구성...10톤 이상 노후 어선·사고이력 어선 등 1백척 대상

전북자치도는 최근 부안해역에서 발생한 근해어선(제2022신방주호, 32톤, 부산선적)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전북자치도, 시군,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이 함께 참여하며, 도내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포함) 100척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10톤 이상 노후 어선, 최근 3년간 안

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1일 조업선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어선사고는 겨울철 저수온기에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어선 필수 설비 구비 여부 및 상태 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입의 차단 여부 △화재 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통신장비 조난버튼(SOS) 사용법, 구명조끼 상시 착용, 운항 시 상시

경계 강화 등 필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외국인 선원 근로자 증가에 따라 어선 안전교육 및 조업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중앙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해 의무 안전조업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재희 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들도 출항 전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전북인삼농협, 도청서 전북인삼소비촉진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과 함께 ‘삼·삼(蔘蔘)데이’를 앞둔 지난달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전북 인삼으로 온 국민을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인삼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전용태·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조합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출근하는 도청 직원과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홍삼가공식품 꾸러미를 나눠주며 전북인삼 우수성 홍보와 애용을 부탁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STAY ON’ 이벤트...급여·연금 입금 혜택 제공

자동이체 시 최대 5천원 캐시백...급여·연금 입금 시 최대 2만원 추가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고객들에게 실질적 금융 혜택 제공을 위한 ‘자동이체 스테이 온(STAY ON)’과 ‘급여·연금·가맹점 스테이 온(STAY ON)’ 이벤트를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자동이체 STAY ON’ 이벤트는 기간 동안 아파트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보험·통신요금 등 4가지 생활필착형 공과금 항목에서 자동이체로 1개 성공 시 2천원, 2개 이상 성공 시 추가 3천원을 지급하며 총 5천원의 기본 캐시백을 매월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2개월 이상 자동이체를 정상 유지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의 더블업 캐시백도 제공된다. 해당 이벤트는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에 신규 자동이체 등록 후 정상출금이 발생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시행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전북은행 계좌 및 JB신용·체크카드도 자동이체 출금 및 결제 실적이 없는 고객 대상으

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급여·연금·가맹점대금 STAY ON’ 이벤트는 급여·연금·가맹점대금 중 2개월 이상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정상 입금될 경우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모바일쿠폰 1매를 제공한다. 추가로 1회 입금 후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유지될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5,000원이 입금되며, 4개월(최대 400명) 동안 최대 2만원까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즉, 이벤트 기간 동안 입금 후 해당 월 평균잔액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고객에게도 매월 혜택이 반복해서 제공된다.

이벤트 시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급여·연금·가맹점대금 입금 실적이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조건 충족 시 자동응모되며, 정상 계좌 유지 및 마케팅 동의의 고객에 한해 추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4477), 모바일 앱(속뱅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 2년 연속 최고 기금운용 성과...수익률 15% 달성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를 거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00%(잠정·금액가중수익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에 따라 기금 설치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으며,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 -6.94%로 각각 나타났다.

해외주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30%대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주식은 대형 기술주 실적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외채권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양호한 이자수익과 원·달러 환율상승 효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고, 국내채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차례(10월·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해 5%대 수익률을 나타냈다.대체투자 수익률에는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도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우량 투자기회 발굴과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쯤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 [인사]

I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 (2025년 3월 4일 자)

◇지역본부(신규임용)
▲순천초 충북지역본부장

전북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최대 76만 8,000원 지원...“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

고등학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7,000원부터 76만 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받는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북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중·고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양오봉 총장,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끈다

1년 임기, ‘197개 회원대학 지혜 모아 대학사회 어려움 타개·대학교육 질 높여 혁신의 길 나서겠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사진)이 지난 1일부터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임기를 수행한다.

임기는 1년이며, 공식 취임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부회장으로는 이기정 한양대 총장과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이 양 총장과 함께 대교협을 이끈다.

양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재정 악화 등으로 대학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197개 회원대학의 지혜를 모아 타개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혁신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재정 위기 등 대학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대표하

는 대교협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97개 회원 대학과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학교 활용 가능 전북 지역교육 교재 개발

중학생용 워크북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고등학생용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2종... 이달 말 안내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성 실현에 맞춰 도 단위 지역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교재는 중학생용 워크북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고등학생용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2종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는 전북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도를 쉽게 이해하고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오랫동안 지역과 지역교육 연구에 힘써온 지역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이 집필진과 자문위원,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수차례 토론과 검토를 거쳐 보다 내

실있고 현장성 있는 교재로 개발됐다.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자율과제로 선정돼 전북도 교육협력추진단-전북대 사범대학-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협업을 완성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선

택과목 개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위 학교가 개발 부담없이 지역 과목을 개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연수를 통해 과목 개발 및 지역교육 교재 활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

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대, AIDT 초등 적용교원 연수 사업 성과공유회 성황리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진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SLI교육그룹, 테크빌교육(주)이 주관한 ‘2024 AIDT 초등 적용교원 연수 사업 성과공유회’가 지난달 26일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선도교사 강사단과 일반 초등교원, 전주교육대학교 등 사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해 AIDT(AI Digital Textbook) 기반 교육 연수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주교육대학교 정영식 산학협력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2024 AIDT 초등 적용교원 연수 사업의 정량적 성과 발표와 함께, 참여 교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우수 사례 발표 및 소감을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AIDT 기반 교육 연수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확인한 전주교육대학교는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



육청과의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 다.

/최성민 기자

박노준우석대총장 “글로벌대학30 선정 집중”

취임 1주년... 완주군 등 협력 지역정주형 수소인재 양성 기반 구축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우석대학교 제15대 박노준 총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를 이끌겠다”며 “글로벌대학30 반드시 진립하겠다”고 대학의 미래 성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박 총장은 호서대에서 스포츠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서울과학기술대와 우석대 등을 두루 거치며 후학을 양성해 왔고, 2020년 안양대 제11대 총장을 역임한 데 이어 2024년 우석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박 총장은 취임 이후 구성원들과 교육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을 마무리한 점을 강조했다.

캠퍼스가 있는 전북과 충북의 혁신성장 사업,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산업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거 개편하는 승부수를 둔 것인데, 기존의 10개 단과대학·4개 학부·41개 학과를 8개 단과대학·4개 학부·43개 학과로 재편하고 ‘수소 중심 대학’이라는 컨셉을 확고히 했다.

이 외에도 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산학협력과 정부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한 점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박 총장은 “이에 힘입어 우리 대학이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2차년도 성과평가 A등급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종합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날 박 총장은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정부로부터 1,000억에 달하는 거금을 지원받게 되는 점, 그리고 ‘국가가 인증한 우수 혁신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다는 점에서 모든 지방대학이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다.

박 총장은 “글로벌대학30은 단순히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역 대학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며 “우석대는 이미 글로벌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역량을 축적한 ‘준비된 대학’이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축구 명문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1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 경기에서 전주대는 인천대를 1:0으로 승리하며 정상에 자리에 우뚝 섰다.

2021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우승과 2022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을 통해 축구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주대는 1985년 창단 이후 첫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트로피까지 차지했다.

직접 결승 경기장을 찾아 우리 대학 축구부 우승을 지켜본 박진배 총장은 “우리 대학 축구부가 전국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이 순간이 무척 기쁘다.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설 연휴도 반납하고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들과 축구부 지도자분들의 노력이 빛을 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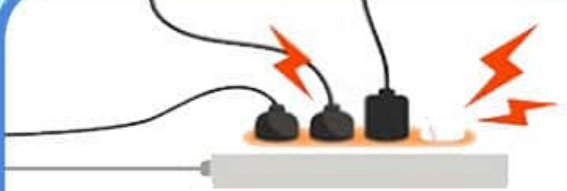
정진혁 축구 감독은 “항상 우리 선수들을 신뢰한다. 아울러, 선수들에게 항상 즐거운 축구를 강조했다. 이번 춘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 스스로를 신뢰하고 동료를 신뢰하여 즐거운 축구를 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985년 팀 창단 이후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만큼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대학축구를 선도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안전하고 올바른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법

전기히터 안전 사용법



이동시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먼지도 화재 원인이기에
자주 청소 하기



1~2시간 사용후
10분씩 전원끄기



어린이 또는 반려동물
접근 주의

전기담요, 전기장판 안전사용법



잠들기전 타이머 설정
체온과 비슷하게 설정



전기담요를 접거나
이불 등에 겹쳐놓지 않기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 뽑기



소비전력 확인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익산시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 최대 규모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학습 보조나 급·간식 지원, 등·하원, 병원진료 동행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시는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이 함께 부담을 짊어지는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는 올해 5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가정별로 첫째 아이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70%를, 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큰 폭의 지원으로,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회

정읍시가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인청년회의소(회장 심우중)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장·시의원, 최용훈 교육장, 황인형 대대장, 독립유공자 후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3·1운동 기념탑에서의 헌화·참배로 시작돼 태인초등학교로 이동해 이어졌다. 안광식 광복회 정읍지회장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이어 3·1절 노래 제창, 기념사, 만세삼창이 진행됐다. 또한, '봉선화' 무용극 공연, 손태극기 배부, 태극기 게양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라며 "독립만세운동을 하며 소중한 생명을 바친 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배우며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올해 모집 대수는 총 374대이다. 참여 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 (<https://car.cpoint.or.kr>) 회원으로 가입 후 자동차 전면(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순정축협~송령교 개설 착공

사업비 30억 원 투입… 총연장 483m 기존 이면도로 왕복 2차선 확장 공사

정읍시가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령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이달부터 본격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483m의 기존 이면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차도 확장뿐만 아니라 보행자 도로 정비,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가로등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전반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도로 개설사업



정읍시가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령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이달부터 본격 착공한다.

을 통해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총 125억 원 규모… 담보 부족한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 대출·4% 이자 지원 제공

익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익산시는 오는 4일부터 NH농협은행, 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담보 없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최대 5,000만 원 대출과 최대 4%의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 중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된 이자 지원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며,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보증 금액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063-838-9374~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강임준시장, 새만금신항 원포트 운영 촉구 단식 '중단'

혈당·혈압 등 위험 판단 의료진 권유… "투쟁은 계속할 것" 군산시의회 단식농성 이어간다

군산항·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할 지정과 새만금 수변도시 군산 귀속을 촉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7일차인 지난 2일 단식을 중단하고, 군산시의회가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간다.

단식 동안 물과 소금 등 수분 섭취로만 버텨온 강 시장은 평소 앓고 있던 혈압 등 건강 이상증세와 저혈당 및 극심한 기력저하로 의료진의 만류를 통해 결국 단식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회복치료 후 이른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시의원 중 첫 번째로 단식을 이어받은 김영일 의원은 "단식을 이어가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는 매우 강했으나, 더 이상의 단식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즉각 단식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해서도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사수를 위한 명분 투쟁은 계속해 나가실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

본인 납입액 240만 원·정읍시 매칭액 240만 원 더해 최대 500만 원 적금… 총 75명 모집

정읍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 240만원에 정읍시 매칭액 240만원을 더해, 이자 포함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인 근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며 신청은 '전북청년 두배적금' 공식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75명으로 가구소득, 가구원 수, 연령 등을 고려한 정량 심사를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20명, 2024년 50명,



2025년 75명으로 점차 지원 인원을 확대하며 청년 자선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발된 청년들은 온라인 금융교육(2시간), 오프라인 금융교육(2시간), 금융 컨설팅(1시간)을 이수하며 저축 습관 형성과 생애 재무설계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오프라인 금융교육

은 6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시간 여행이 시작되는 익산 '금종제과'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 기차역 테마 베이커리 카페 재탄생

익산 역세권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금빛 종소리가 '금종제과'의 시작을 알린다.

금종제과는 기차역 테마의 베이커리 카페로, 오는 10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금종제과는 구도심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해 익산시와 ㈜하나은행, ㈜글로벌우서울이 만들어낸 지역 상생 모델로,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중앙로5길 27)을 개보수해 탄생했다.

시는 지난해 9월 ㈜하나은행, ㈜글로벌우서울과 구도심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결과 금종제과가 자리를 잡게 됐다.

㈜하나은행은 '다이로움' 카드 발행사로서 6년째 익산시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우서울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감각적인 콘텐츠로 국내 공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금종제과 조성 공사를 담당했다.

금종제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1층은 종합 베이커리, 2층 식음공간으로 조성됐다.



3층은 이달부터 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익산시 홍보 캐릭터인 '마룡' 상품을 판매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팝업 매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표 메뉴는 '와르르 브름 케이크(딸기·귤)'로 신선한 제철 과일을 듬뿍 올려 부드러운 크림과 과일이 조화를 이루는 디저트다. 이 외에도 전통의 맛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빵이 준비돼 있다.

금종제과는 익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미래 발전 이끌 국책사업 발굴 시동

공무원·지역 전문가·전문연구원 등 합쳐 국책사업발굴단 첫회의 완료

군산시가 지난달 28일 군산의 미래를 이끌 국책사업(신성장동력)발굴단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발굴단은 ▲산업·경제, ▲지역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 ▲문화·관광, ▲교육·보건·복지, ▲농업·농촌, ▲기타 융·복합의 6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또한 보건소를 제외한 8개 국장이 국별 단장을 맡으며 시 정책자문단, 전북연구원, 소속 부서장, 계장·주무관 등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정에 밝은 관내 주요 분야 교수·대표단의 정책자문단, 시정 정책발굴에 관심 있는 계·과장 주무관들도 사업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 참여시켜 군산의 미래 전망을 밝힐 수 있는 정

책을 찾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6개 분야 8개 전담 조직로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에 국별 배치된 무보직 6급이 책임 간사로 활동하며 시에 특화된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도록 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첫 회의 이후로는 각 분야로 나뉘어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소재 발굴 ▲발굴 소재 추진 논리, 타당성 구체화 ▲구체화된 정책 소재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며, 이후 국가사업 반영 및 예산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수당 인상

수당 2만 원 인상…'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은 도비와 인상된 시비를 합산해 참전유

공자는 월 14만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2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받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옥구~옥서 권역 행복콜버스 신규 운행

월요일~토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콜센터 예약제 운행

군산시가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콜버스가 이날부터 옥구·옥서 권역까지 확대 운영된다.

현재 군산시에는 8대의 행복콜버스가 임피·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가력항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옥구·옥서면 신규 운행에 따라 5개 권역에서 총 10대의 행복콜버스가 운영된다.

운행방식은 ▲회현면과 임피면, 서수면은 호출제 ▲대야면은 노선제와 호출제 혼합 ▲가력항은 배 시간표에 맞춰 1일 3회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회현면은 오전 7시~오후 6시, 임

피·서수·대야면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이다.

새롭게 운행하는 옥구·옥서 권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약제로 운행된다. 운행 대수는 2대로 이용요금은 500원이다. 시내버스로 환승할 땐 일반 버스 요금에서 500원이 차감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행복콜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063-454-9874)로 이용 시간 한 시간 전까지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전지훈련 유치로 경제효과 톡톡

야구·태권도 등 34개팀 훈련, 전년 대비 30%증가…1억5천여 만원 효과 창출해

고창군이 동계 전지훈련 유치로 1억5천여 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고창군에선 지난 1~2월 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등 34개팀 560여명이 스포츠타운, 군립체육관 등에서 훈련했다.

이는 전년 동계 시즌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고창스포츠타운은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타운으로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유소년야구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돼 있고 군립체육관, 공설운동장, 전지훈련센터와 근접해있으며 주변 숙소, 식당과도 접근성이 높다.

특히, 전지훈련센터에는 근력과 유산소 운동 기구가 내실있게 설치돼 폭설로 야외 훈련이 어려울 때에도 선수들이 훈련 공백없이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고창을 방문한 선수단은 숙박시설,



고창군이 동계 전지훈련 유치로 1억5천여 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식당, 관광지 등을 이용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의 소비활동을 견인하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

한 체육 인프라 확대와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고창을 찾도록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기업전담제’ 지역기업 애로사항 75% 해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총 66건 중 50건 해소,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충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기업전담제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기업전담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은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 시스템으로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총 66건의 기업애로 사항 중 50건을 해결해 75%의 높은 해소율을 기록했으며,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환경·안전(18건), 인력난(9건), 자금 지원(8건), 판로 확대(6건), 제도개선(4건) 등이 있다.

눈에 띄는 해결 사례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등이 있으며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안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시는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자리 잡은 기업전담제를 더욱 강화 시키기 위해 인력양성, 판로개척, 규제개선 등을



김제시가 기업전담제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위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전담제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꾀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각 실과소들이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기술지원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서별 기업전담제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기업과 소통하는 김제, 기업하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추진

매월 10만 원 적립 시 지자체 동일 금액 추가 지원…2년 만기 최대 5백만원 수령

고창군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내 거주하는 근로 청년(18~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 고창군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의 신청은 4월 오전 9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

부안군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70세 이상 부안군민 무료 접종에 이어 올해에는 60세 이상 부안군민 7586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료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부안 군민이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군민과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종은

생백신 1회 지원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되며 접종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상포진은 통증과 합병증 발생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라며 “이번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해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3.1운동 106주년 기념식 가져 순국선열들 독립 의지·투쟁 정신 계승 시킬 것 다짐

고창군이 지난1일 오전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리국악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안규백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고창군의회 군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순국선열들의 독립 의지와 항일 투쟁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국민례를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독립선언문 낭독, 심덕섭 고창군수의 기념사, 안

규백 의원의 축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념사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뜨거운 외침이 울려 퍼졌던 3.1운동이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다”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도록 다양한 보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4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행안부에서 통보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시는 ▲기관장 혁신 리더십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 진행

고창군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고창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답례품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고창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도 하시고 혜택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모금된 기금은 농산물 판매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등 고창군의 미



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민-공무원, 함께하는 시책연구' 첫 걸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8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2025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의 힘찬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24일까지 신청자 공개 모집을 통해 시정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과 분야의 시민 27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약 6개월간 정기적인 연구모임과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게 된다.

이번 시책연구모임은 시민들로부터 구성된 조에서 먼저 연구과제를 선정

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공무원과 협력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과 동시에 실현 가능성 또한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책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해주시고, 보다 나은 김제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17일까지 비상임 임원 7명 공개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이 지난달 27일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단을 이끌어갈 비상임 임원을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이다.

비상임 이사의 자격요건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3급 이상 경력 소지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중 재단법인 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단의 3급 이상의 직급 경력 소지자 ▲4년제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문화, 예술, 관광, 경영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갖춘 자 ▲4급이상 전직공무원 등이 해당되며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다.

비상임 감사는 감사직무 수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필수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어민들 무사안녕 기원 동호 풍어제 열려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 연신당에서 지난달 28일 어업안정과 풍어,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개최됐다.

연신당은 구동호마을에서 돌출된 암벽지대에 위치해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들을 살피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표류하지 않도록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제신당이다.

오전 10시 마을주민들은 음식장만과 제례 준비를 시작했으며, 올 한해도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만전이 되기를 기원하며, 어민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동호어촌계 이길연 어촌계장은 “동호에서 열리는 풍어제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 및 관광객들의 즐거운 체험활동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준비한다”며 “어업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져 마을이 번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창립 이사회 개최…출범 공식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8일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며 재단 출범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총회는 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의 당면적 이사장인 정성주 김제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 승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더불어 시의 중소농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재단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공유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비상임 이사 4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정 시장은 “재단이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먹거리 체계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시가 농업수도 위상확립과 농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 군민 장제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역 내 장례식장·소상공인과 협약…유가족 경제적 부담 완화
만 60세 이상 사망자 연고자에 100만 원 지원…60세 미만 소득 기준 차등 적용

순창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청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 장례식장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협약 체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은 그동안 군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고를 기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우를 다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사망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



순창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된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은 지역 장례식장 업체와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소상공인 연합회와 장례식장 대표자들 역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순창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군민들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34억 투입해 1,400ha 규모 산림 조성

지속가능 산림자원 기반 마련…탄소중립·양봉농가 지원 강화

완주군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총 1,400ha 규모로 진행되며, 약 34억 2,500만 원이 투입된다. 조림 사업 209ha에 11억 5,2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1,191ha에 22억 7,300만 원이 배정됐다. 조림사업은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 185ha, 산림재해방지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조림 24ha를 실시한다.

편백·낙엽송·소나무·상수리·백합나무·느릅나무·자작나무·물푸레나무·아까시나무 등 53만 7,000본을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밀원자원 확보를 위해 백합나무,

아까시나무를 식재해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보전을 위해 생장 단계에 맞춰 풀베기·덩굴 제거 890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큰나무 가꾸기 151ha, 산물수집 50ha를 실시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및 산림재해에 강한 숲으로 관리·조성해 나간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조림지 사후관리를 통한 경제림 조성 기반 마련과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실시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병근 기자

‘남원 명품’ 시설 복숭아, 조기 출하로 고부가가치 창출

전북 남원시의 시설하우스에서는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낸 복숭아 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남원 시설복숭아는 1월 상순 가운을 시작해 노지재배보다 약 40일 빠른 2월에 복사꽃이 만개하며, 5월 20일경부터 본격 수확이 이뤄진다.

남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복숭아를 출하하는 지역 중 하나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농가의 뛰어난 재배 기술과 조기 출하로 인해 신선한 복숭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남원시는 300여 농가(면적 331ha)가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이백억원 이상의 조수익과 수출 실적을 창출하고 있다.

이 중 시설재배 복숭아는 13ha 규모로, 5월 중순부터 출하하며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최고가 8만원(평균 3만원) 이상을 형성하는 조기 출하품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복숭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숭아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및 시범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출용 저장성 향상 기술 도입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취향에 맞춘 신품종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올해 73억 지원 전기자동차 총 529대 보급

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73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529대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한다. 상반기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165대, 전기 화물차 104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남원시, 전북도 예산과 국가 지원 예산을 합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은 최대 1,25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1,700만원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남원시, 전북도 예산과 국가 지원 예산을 합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은 최대 1,25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1,700만원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도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도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산단 조식 지원 ‘인기’…작업복 세탁 지원도 추진



완주군이 지난해 전북 최초로 시행한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2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와 주변 상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식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완주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로컬 푸드를 사용해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간편식 총 200인분을 만들어 완주군 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종합복지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판매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판매한다.

완주군이 지난해 전북 최초로 시행한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2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와 주변 상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식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완주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로컬 푸드를 사용해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간편식 총 200인분을 만들어 완주군 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종합복지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판매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판매한다.

완주군이 지난해 전북 최초로 시행한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2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와 주변 상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식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전주비전대, 지역혁신 인재양성 협력 ‘맞손’

3억 규모 화장품·바이오산업 연계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추진

남원시는 전주비전대와 지난달 28일 남원시청 2층 부시장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남원시와 전주비전대학교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주력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상생 지·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운영이다. 추후 협약 내



용에 따라 전주비전대의 미용건강과와 남원시 화장품 및 바이오 산업을 연계해 시에 3억 규모의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구축한다.

남원시와 전주비전대학교는 협약식

이후에도 지역혁신중심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주)뉴텍과 축산 무인 자동화 시스템 보급 협약

완주군이 (주)뉴텍(대표 유영우)과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축산분야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의 시범보급'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완주군 지역에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의 시범보급을 추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의 운영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축산업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군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업 현대화와 ICT 기반 스마트 축산 실현의 발판을 마련,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텍 관계자는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인력 부담과 사료 낭비를 줄이고, 규칙적인 급이 관리를 통해 축산분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원격 모니터



링 기능을 활용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김병근 기자

남원 춘향제, 백년 향한 100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제95회 남원 춘향제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화)까지 7일간 남원시 관한루원 및 요천면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할 계획이다.

남원 춘향제는 조선시대 사랑과 절개의 이야기인 춘향전을 바탕으로 1931년 시작돼 2025년인 지금까지도 매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최고(最古) 대표 전통문화 축제이다.

그동안 문화체육부 선정 우수축제, 전통예술 분야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며 더욱 성장한 춘향제는, 작년 제94회에서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100회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제95회 남원춘향제는 춘향제

100년을 향한 백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100회를 준비하는 정체성 확립과 전통과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해 대중적인 전통문화 예술축제를 지향할 예정이다. ‘소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남원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향이몽이 야외도서관(관한루원내 조성), ‘소리’를 주제로 한 댄스·락 경연대회 개최, 요천둔치 품바공연장 조성, 남원시 23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향토음식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으며, 해외 공연단의 교류공연을 통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츠를 개발해 남원춘향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춘향제 기간에 맞춰 할인행사인 춘향페스타로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 체험 쿠폰,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로 전라권을 넘어 전국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5년 후인 100회까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95회 춘향제는 춘향제 100년을 향한 백가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 곁에 다가가기 위해 차곡차곡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기대를 UP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된 주요 안건은 ▲ 202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안(인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2025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안(강전선 K-웰니스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 2025년 지방재정공사(예산) 안, ▲ 2025년 제2차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안 등 총 4건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재정투명성 강화

순창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재정 공사, 지방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신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임실군, 여행가는 달 맞이 ‘SNS 방문 인증 이벤트’ 추진

임실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내 여행 참여 분위기 조성 캠페인 ‘2025년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임실 여행 SNS 방문 인증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3월 중 임실을 방문하고 임실 여행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임실, #임실여행, #여행가는달)와 함께 업로드한 후 이벤트 페이지(<https://naver.me/x8toNSRh>)를 통해 게시물 URL을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타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그밖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벤트 참여자 중 30명을 선발해 4만원 상당의 임실치즈선물세트를 지급하며, 이벤트 당첨 결과는 내달 7일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심 민 군수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임실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며 임실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받아

임실군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오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군청 산림복지과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공직자 대상 2025년 적극행정 교육 실시

장수군이 지난달 27일 군민회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촉소되는 세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가천대학교 홍의택 교수가 강연에 나섰다.

홍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에 대한 맞춤형 설명으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위기 대응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국내의 사례를 확인하고 장수군의 인구구조 변화에 유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의 인구구조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다”며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행정으로 장수군의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돼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연장농공단지 환경개선 첫발

거리조성·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 4년간 총128억 투입해 기업여건 개선 주력

진안군이 관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농공단지 구조조도와 사업의 첫 걸음을 뒀다.

지난달 27일 농촌미래국장실에서 열린 이번 용역 보고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용역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등 국가공도사업 2건에 대해 다뤘다.

기본 계획 결과보고회로 마련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사업은 향후 3년간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활기찬 거북바위로 만들기, 즐거운 거북바위 생태쉼터 더하기, 매력있는 진입관문 가꾸기의 3가지 큰 테마를 주제로 30년

이상된 노후 농공단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착수보고회로 진행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4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임대공장 10개소, 농공단지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스타트업 임대사무실 등 구축을 주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구축을 위해 외부전문가, 주민, 입주기업,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거북바위로 만들기, 즐거운 거북바위 생태쉼터 더하기, 매력있는 진입관문

가꾸기의 3가지 큰 테마를 주제로 30년

고 있어 단지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선도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장농공단지는 회장 진안홍삼주조장 조해성대표, 총무 주식회사 리버텍 고영민대표가, 홍삼농공단지는 회장 정진산업 진광선대표, 총무 주식회사 원광에프앤지 이도기 대표가 각각 3월부터 2년 임기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산림소득 분야 사업에 15억 원 투입

“임가 소득증대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및 임업경영 안정화에 주력 할 것”

무주군이 올해 산림소득 분야 농림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임가 소득증대 및 임업경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과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표고버섯 육성지원 등 8개 사업 추진에 투입한다.

2025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한

무주군은 이를 고로쇠·자작 수액 정제 및 저장 창고 등 기반 시설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산림작물 및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야 지력 회복에도 힘을 예정이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신정호 과장은

“무주군은 올해 82%의 산림을 소득이 있는 최고의 일터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며 “특히 모든 사업 추진 주체인 임업인의 전문성과 역량, 소득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품질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뒷받침하는 등 임가 소득증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뉴미디어팀 신설 효과…달라진 SNS 호응

신규공무원 직접 기획·출연·제작 솜품 인기 속 단기간 조회수 18만 돌파

임실군의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제작과 참여해 만드는 SNS 솜품영상이 재미와 참신성을 더해 높은 조회수를 견인하며 군정 홍보에 특목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임실군은 새해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담당관 산하 뉴미디어팀을 신설했다. 젊은 감각과 SNS 트렌드를 적재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팀장 및 팀원들은 모두 9급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다.

9급 팀원들의 활약은 SNS 영상 조회수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한 달여간 임실군의 주요 홍보 아이템인 2025 임실방문의 해와 고향사랑기부제, 이색공연인 몽골친선 문화공연, 옥정호 반려견 출입시범운영, 삼계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애향장학금 등을 주제로 총 9개의 솜품 콘텐츠 및 일반영상을 선보였다.

특히 봉어섬 소형 반려견 입장 시범운영을 주제로 만들어진 솜품영상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실감하듯 일주일 만에 조회수 2.9만회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반려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댓글들도 “요즘 임실 군청 SNS 왜이리 재밌네요”, “관공서



릴스에서 인플 느낌이 풀풀 나요” 등 SNS가 참신하고 새로워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높은 관심에 힘입어 내달 5일과 6일 열릴 옥정호 벚꽃축제를 앞두고도 참신하면서 행복과 웃음을 안기는 솜품영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외주에 의존하기 보다는 군정 소식에 밝은 공무원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솜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군정 소식과 사계절 축제, 각종 행사를 알릴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SNS 온라인 홍보 시대에 맞게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담당관 산하 뉴미디어팀을 신설한 취지에 맞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된 다양한 군정 콘텐츠와 이벤트 등을 추진, 임실의 매력을 알리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또 “SNS의 높은 확산력을 활용해 임실방문의 해와 천만관광 임실, 고향사랑기부는 물론 군정 소식들을 군민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금강 상류구간 국가하천 승격 추진

장수군은 지난달 24일, 25일 이틀간 주요 현안사업인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은 금강유역환경청 방문을 통해 금강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알리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전북 내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오수천, 전주천 사례를 공유받고 금강 승격구간의 시점부와 종점부 설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수군에서 발원하는 금강은 뜬봉샘에서 시작해 진안군 경계(천천면 연평리)까지는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진안군 경계 이후부터 용담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리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하천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장수군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동안 금강에서는 총 6회 홍수가 발생해 216억원의 재산피해, 인명피해 2명, 이재민 236명의 주민피해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농경지 12.62ha, 주

거지 8동 등이 분포해 있어 수해발생 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과 치수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훈식 군수는 “다목적댐(용담댐) 운영에 따른 수변구역 설정으로 상류 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체계적인 홍수 예방 및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두문마을, ‘농촌관광경쟁력제고’공모 선정 “낙화놀이의 지속가능성 구현 계기 될 것으로 기대”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억 원을 확보(총 사업비의 50% 지원)했다.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이 보유한 자연경관과 농특산물, 음식, 역사,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은 이 사업을 기반으로 ▲낙화봉 불량을 감소 위한 습기 차단 장비를 구매하고 ▲체험장 리모델링과 ▲야간경관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 재분배할 방침으로 우수 인재유입 계기로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박민재 팀장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이 무주의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두문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표 명물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낙화놀이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 운영과 자립성·수익성 제고, 농촌체험관광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이루라진안군의원, “민간제설단작업환경등 개선 해야”



이루라 진안군의원

진안군의원 이루라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민간제설단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제설작

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루라 의원은 최근 극심한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 제설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제설작업의 강도와 위험성에 비해 현재 인건비가 부족한 점과 제설 장비의 노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제설작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강설 후 빠르게

도로를 정리해야 하는 특성상 노동강도가 높으며, 민간제설단 운영 개선을 위해 ▲인건비 현실화 ▲각 읍면의 민간제설단 운영 예산집행 기준 통일 ▲노후화된 제설장비 교체 및 추가적인 장비 도입 ▲사고 시 자부담 축소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근거해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와 동원 장비수리비용을 지원해, 우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 군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제설작업을 자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지역 내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임대료 지원과 인프라지원 2개 사업이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업장 관련 개선비 및 기계장치 구입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9개소를 선발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2천만원이다.

또한, 임대료 지원사업은 5개소를

선발해 월 최대 25만원씩, 연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유망 청년 창업자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부안군, 고향사랑 상호교차 기부 이어가

진안군은 부안군과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교차 기부를 추진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진안-부안 각 지역의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해 각 1천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의 지역에 전달했으며, 추후에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추가적으로 1천1백만원씩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군과 부안군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인구 감소 및 지역 발전과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앞장선 진안군과 부안군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제242회 정기연주회 '차원' 개최

전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심상옥)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신춘음악회 젊은명인시리즈 '차원' 공연을 개최한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제242회 정기연주회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봄을 맞이하는 '신춘음악회'와 전도유망한 국악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젊은명인시리즈'가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파도(波濤): 물의 춤(작곡 장석진) ▲해금협주곡 'VERSES'(작곡 토마스 오스번) ▲창작국악관현악과 판소리를 위한 '춘향이아기'(작곡 조원행) ▲피리협주곡 '달의 눈물'(작곡 이정민), ▲'춤추는 바다'(작곡 김성국)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 입장권은 일반은 5000원, 학생(초·중·고) 및 단체(20인 이상)는 3000원으로, 나루컬처(www.naruculture.com)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영태 기자



완주군 선덕보육원, 국립청소년센터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

선덕복지재단(이사장 김홍석) 산하 선덕보육원(원장 성제환)이 2박 3일간 부산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30여 명이 참여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배웠다.

특히 ▲생태 퀴즈 활동 ▲생태 속 풀벌레의 역할과 중요성 ▲생태공원 자전거 체험 ▲조류 관찰 및 이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의 구성과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방법을 직접 고민해 보는 활동을 벌였다.

김홍석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아동들이 자연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됐다"며 "쓰레기 줍기, 올바른 분리배출, 운수 절약 등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군산시 박경아 주무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지방규제개혁 유공’ 분야…호남권 최초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지역 경제 활성화·군산항 발전 기여

군산시청 항만해양과에 근무하는 박경아 주무관이 '지방규제개혁 유공'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규제개혁 유공’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박경아 주무관의 국무총리 표창은 민·관 협업 및 고시 개정을 통해 호남권 최초 특송화물 통관장



을 개장,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산 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은 결과다.

은 결과다.

군산시는 통관장 개장으로 연간 185억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으며, 통관장 운영인력, 특송업체, 화물 운송 및 물류주선업체 등에서 최소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수상식에 참석한 박경아 주무관은 "기여를 인정받아 뜻깊고 표창 수상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산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사회복지관·글로벌쉐어, 저소득층에 넥워머 기탁

방한 넥워머 1800세트 3천만 원 상당 기탁…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 전하기 위해 마련'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이 글로벌쉐어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 넥워머 1800세트(3000만원 상당)를 정읍시에 기탁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이번 기탁은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넥워머는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 가족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이용 대상자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정관일 관장은 "이번 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남은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은 "기탁 물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후원에 감사드리며, 정읍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사회복지관이 글로벌쉐어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 넥워머 1800세트를 정읍시에 기탁했다



웅포면 새마을부녀회, 봄을 알리는 따뜻한 나눔

웅포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효남)는 지난달 28일 봄을 맞아 직접 채취한 냉이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 명은 웅포면 상계마을에 위치한 들에서 직접 채취한 냉이 80인분을 '요셉식탁'에 전달했다.

요셉식탁(대표 김혁태배드로 신부)은 2021년부터 익산역 주변 노숙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급식소다.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요셉식탁은 하루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효남 부녀회장은 "아직 바람이 차갑지만 뜻깊게 나눠주신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미리 웅포면장은 "봄 내음 물씬 나는 싱그러움 냉이국이 노숙자들의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의 노력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웅포면 부녀회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새농민회, 김제시 이웃돕기성금 200만 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농민회(회장 정성우)가 지난달 28일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새농민회의 지역 사람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성금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새농민회 정성우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늘 앞장서며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신 새농민회에 감사드리다"며 "오늘의 성금 기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재능 나눔 자원봉사활동 운영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25년 「찾아가는 재능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장수군내 7개 읍·면 마을회관에서 진행한다.

찾아가는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전문자원봉사단 육성교육을 통해 구성된 속담봉사단, 귀반봉사단, 네일아트봉사단, 이미용봉사단 등이 팀을 이루어 7개 읍·면 경로당을 방문하여 일손이 적은 동절기 동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 증진과 활력을 드리고자 마련된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 후에는 어르신 및 봉사자들이 센터에서 준비해간 간식을 나눠 먹으며 정겨운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재능 나눔 자원봉사활동은 지난달 25일 장수읍 읍민마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계북면 백암마을 끝으로 총 7회 운영한다.

이희숙 센터장은 장수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태인바르게살기협의회장봉기 회장, 배우자 부의금 일부 기부

정읍시 태인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태인바르게살기협의회 장봉기 회장은 배우자상 부의금 일부인 100만원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지난 1월 배우자상을 당한 장 회장은 "지역민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태인면은 이번 기부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용천 면장은 "장봉기 회장의 따뜻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재전남원연합향우회,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 기탁

지난달 27일 오후, 재전남원연합향우회(회장 김진규)가 제5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고향 남원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제5기 취회회장(김진규)은 "남원시 청소년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올해부터 우리 향우회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고향 남원에 꾸준히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하려고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민선식 부시장은 "재전남원연합향우회를 중심으로 고향 사랑의 물결이 더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기부금은 청소년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사업에 쓰도록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일상 속(가정, 직장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안 쓰는 방전등끄기

북북이나 문풍지로 따듯한 집 만들기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 해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一事一言〉



금융위기, 시간 끌수록 비용 급증할 것

홍중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금융위기는 ①구조적 문제로 성장률이 하락할 때 ②금리를 인 하하고, 유동성을 늘리면 ③금융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위험한 대 출을 하다가 ④부실채권을 감추 려고 추가적인 대출을 남발하고 ⑤이 과정에서 대규모로 쏠리기 업이 발생한다. ⑥결국 한계에 달 해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이 연쇄 적으로 파산하게 되는데, 이를 제 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장기침체 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3단계까지 설명했다.

폰지 경제는 과도한 부채로 인 해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를 말한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제이다. 한국 과 같이 대출이 부동산에 편중되 어 있을 때 거품이 일어난다. 방 만한 부채로 커진 거품이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서서히 가계와 기 업의 부실이 드러나게 된다. 부 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 한 가계대출은 소득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방만하게 이루어 졌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4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을 받은 1978만 명의 평 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9.9%에 달했다. 소득의 40% 를 빚갚는데 쓴다는 의미이다.

그 중에서 DSR이 70%가 넘는 채무자가 295만 명에 달하고, 여 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 중 채무자 448만 명의 평균 DSR 은 61.5%에 달한다. 정상적인 소 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 는 채무자들이 많아서, 추가적으 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빚을 상환

할 수 없다. 과도한 대출의 늪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채무자가 많다. 코로나와 내수침체의 타격 을 받은 자영업자도 버티기 힘들 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략 3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개인사업 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1000 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70%가 넘었으며, 다중 채무자의 비율 역시 70%를 넘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만기 1년 미만의 대출 비 중이 70%가 넘는다. 내수침체 상 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하기는 불가능하다.

소매판매액도 줄고 있는데, 대 형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면서 대 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내 기 힘든 구조이다.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상각하 거나 매각하는데, 2024년에는 은 행만 7조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 을 정리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 성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미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의 부실은 크게 늘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했다면, 정리를 전문으로 하 는 추심기관이 사들였을 것이다.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정 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기 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이나 자영 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정부 는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6단계 에 접어들었다. 금융기관의 대출 은 외형적으로 건전해 보이지만,

대출 건전성의 원천인 가계와 기 업 부문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 다.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의 부 실이 심각한데 금융기관이 건전 할 수는 없다. 현재 대부분 금융 기관 건전성 지표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제대로 실 사하면 운영이 어려운 금융기관 이 속출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와 기업 대출을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경제의 금융위기는 불 가피해 보인다.

IMF사태 당시에도 재벌 계열 사 간 채무보증으로 외형적으로 건전해 보이던 대출이 나중에 대 부분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로 판 명되었다. 결국 재벌 그룹 전체 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금융기관 들도 파산을 면치 못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 가지이다. 이미 2006년쯤부터 미 국 전역에서 대출을 갚지못해 경 매로 넘어간 주택들이 크게 늘었 고,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 실로 이어졌다. 리만 브라더스가 넘어간 2008년에 많은 금융기관 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밝 혀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 되었다.

금융위기가 코 앞에 다가왔으 나 놀랍게도 현재 한국 경제에서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 렵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시 도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게 되면 책임이 수 반되는데, 현재 그 비난을 무릅쓰 고 부실기업을 정리할 공무원도

없고 정치인은 더더욱 찾기 힘들 다. 수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덮거나 회피하기 에 급급한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 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발빠른 지자체는 토지와 관 련된 규제를 풀고,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고 나서고 있다. DSR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을 낮추라는 정치권이 요구가 거세 지고 있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대 부분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책들 이다. 금융위기는 시간을 끌면 끌 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속성이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지불할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중 이다.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방만한 기업 대출로 온 국민이 피 해를 입은 기억을 잊은 채, 한국 경제는 다시 거품에 취해 부동산 대출을 늘려왔다. 필자는 한국 경 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 하며 20여 년간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계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과제와 전략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가 균 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북이 세 계적인 스포츠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 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국내 후보지 선정이 끝이 아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최종 투표에서 개최지로 확정되 기 위해서는 앞으로 치열한 경쟁과 전략 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인도, 인도 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가 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전 북이 유치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 민해야 한다.

전북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 이다.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체육시설 신 축 및 개보수, 관광 인프라 개선이 속도 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수 준의 경기장과 선수촌을 확보하는 것은 IOC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다.

또한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 방안을 제시해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고려한 친환경 대회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면 이 는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전북이 강조해야 할 강점 중 하 나 는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다. 기존 스 포츠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전북은 이를 탈피해 지방의 가능 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호남, 충 청, 영남권 등과의 연대 전략을 적극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역이 협력해 대회를 치를 경우, 경기장과 숙박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중 요한 논리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전북의 인지도를 높이 는 것도 과제다.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 하려면 글로벌 홍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K-POP, K-드라 마, 한식과 같은 한류 문화를 활용해 전 북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올림픽 개최가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IOC 위원 및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해 전북의 강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GBCH 챌린 지' 등을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왔 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 는 다양한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도 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IOC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2036년 올림픽 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사 회와 국가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예상 밖의 쾌거였다. 하지 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북이 최종 개 최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력을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 기준에 맞는 인프라 구축, 균형발 전을 위한 연대 강화, 적극적인 글로벌 홍보, 도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문
화
재
열
전



김제향교 대성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교육문화, 향교
-지정일- 1971년 12월 2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김제시 향교길 89-3
(교동)

▲오늘의시

봄길 / 정 호 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날려져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대구 대륜 고를 거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 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 보 신춘문예에 시 '청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12 회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도민일보 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명품박물관으로 발돋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군산 근대화 여행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70,285명 증가한 59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이후 박물관이 정상 운영의 궤도에 재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개관한 박물관은 2015년 전국 공립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에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도 박물관은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관광 명소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2024년 근대 역사문화 관련 전시 행사는 총 130회로 ▲박물관 기획전 4회 ▲미술관 특별전 5회 ▲시민 공모전 16회 ▲명절 행사 ▲거리문화공연 ▲주말 상설공연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박물관은 현재 벨트화 지역과 분관 전시관을 통합 운영하여 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분관 전시장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채류 연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은 근대역사박물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장미갤러리, 위봉함(진포해양테마공원), 장미공원 등 벨트화 권역과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채만식문학관 등 전시장 8개소가 있다.

◆ 근대역사박물관(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천248㎡ 규모 2011년 개관)

군산의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개항 이후 군산이 겪어온 변천사와 근대 유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역사는 미래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 무역항이자 해상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지금도 서해 물류 유통의 천문,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무역항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양물류역사관, 어린이체험관, 독립영웅관, 시민열린갤러리, 근대생활관, 기획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다.



▲ 근대미술관(구 일본18은행)

구 일본18은행을 2008년 2월 28일 등 록문화재로 지정한 후 보수·복원을 통하여 근대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18은행 건축자재 전시 공간, 안중근 여순 감옥 재현 공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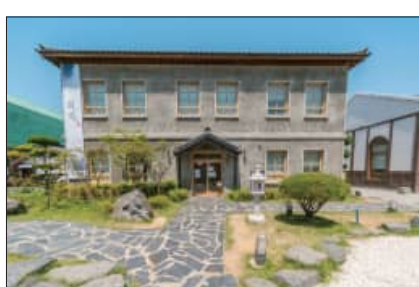
구 조선은행을 2008년 보수·복원 과정을 거쳐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대건축물 미니어처 전시, 경술국치 추념 전시실, 일제강점기 방공호를 만나볼 수 있다.



▲ 진포해양테마공원(위봉함)

실제 군함을 개조해 만든 위봉함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한다.

내부 전시를 통해 해양 전쟁사와 해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장미공원, 장미갤러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복합문

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3.1운동100주년기념관

군산의 자랑스러운 3.5 만세운동과 민족의 항거를 조명하기 위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생생한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이 역사를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채만식문학관

군산 출신의 대표적인 문학가 채만식의 문학을 통해 시대상을 이해하고 창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는 2025년에도 박물관 벨트화 지역 및 분관 전시관에서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역사 체험 활동과 문화관광 해설사 투어,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전시·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근대화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중심’ 도시답게 근대역사와 관련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다시 보고 싶고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역사 도시, 군산의 상징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대표로 하는 원도심의 근대역사 관광 자원과 고군산의 해양관광 자원을 군산 관광의 톱으로 삼아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 · 고군산 해양관광 톱 체계 출발
- ◆ 예술 · 전시 · 공연 · 체험 강화, 다시 찾는 박물관 만든다
- ◆ 관람객 59만 돌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기 재확인

아주달콤한삼레딸기
와함께하는가족
이추제아주달콤한삼레딸기

Very Berry Sweet Samrye

23th 3.7.(금) ~ 3.9.(일) 삼레농협 뒤 공영주차장
완주삼레딸기대축제

주최·주관: 완주군 완주군 삼레농협 완주문화재단 행사후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우석대학교 완주DMO
문의처: 삼레농협 063-291-2711 출연가수: 태진아/ 짜이/ 이희정밴드/ 민지(트루트)/ 김민제(색소폰)